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55~92
http://dx.doi.org/10.21211/JHUM.97.3

전후(戰後) 대만 문단의 연속과 단절*

- 뤼허뤄(呂赫若)의 「月光光」, 「冬夜」를 중심으로

신민영**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펼치며
1. 전후(戰後) 초기의 환희와 절망의 이중주
2. 반복되는 악몽
2. 1. 두 개의 '국어'와 대만어 -「月光光-光復以前」
2. 2. 본성인(本省人)이 '된' 사람들 -「冬夜」
Ⅲ.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먼저 전후 대만문단의 특수한 상황을 여러 보도자료와 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뤼허뤄(呂赫若)의 중문 소설 「月光光-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611)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光復以前」과 「冬夜」을 통해 전후 대만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어' 교체에 따른 대만인들의 곤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필자는 뤼허뤄가 국민당 정부의 중국어/'국어' 교체의 강제를 비판하는 데에서 대만어라는 존재가 담보하는 '대만인'이라는 자각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자각은 「冬夜」에 이르러서는 천이(陳儀) 행정당국의 실정(失政)과 외성인들의 정치/경제 권력의 독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개혁을 요구하는 의식으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또 이 시기 뤼허뤄가 외부 세계의 혼란과 폭력으로부터 대만인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직접 행동을 통한 현실 개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리라 판단했다.

주제어 : 뤼허뤄(呂赫若), 전후, 대만어, 국어 교체, 「月光光-光復以前」, 「冬夜」

Ⅰ. 들어가며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가시화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로 대치하면서 동시에 중국대륙에 인접한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게 '新냉전'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못지않게 미중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일 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대륙 정부의 정책은 대만인들에게 대만 공동체 존립의 심각한 위협으로 읽힌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G2'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힘'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대만은 물리적 거리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원거리에 있

지만, 사회적·역사적 상황맥락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형태를 거쳐 근대를 폭력적으로 경험했다는 역사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에 따른 배상 형식으로 대만은 일본에 할양되면서 50여 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반도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국권이 피탈된 후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겪었다. 한편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와 대만 모두가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한반도는 6. 25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의 상황을 맞게 되었고,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남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만 역시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국민당 정부가 철수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공동체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계엄령, 군사독재,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미일 자본에 힘입은 경제발전, 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대소(對蘇)/대중(對中) 전선의 주요 기지, 민주화 항쟁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은 함께 논의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동시에, 상당히 비슷한 듯 보이는 한반도와 대만의 근현대 역사는 각각 자기 역사공동체만의 문제를 안고 고투하는 시간이었다. 해방 후 한반도의 공적 담론장은 조선어가 제국어를 대체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조선어 사용은 해방 전에도 이미 계속되던 사정이었다. 물론 당시 문인들이 일본어로 생각하고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거쳐야 했다거나 조선어 공부를 위해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어사전을 샀다는 증언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어로 창작을 할 수 없어 문인들이 작품활동을 그만두었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가 36년보다 더 길어졌다면 일본어에서 조선어로의 언어 교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고는 해도, 일본어를 대체할 언어가 조선어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사정이 결코 간단치 않았다. 대만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8월 17일 연합국 대표 자격의 장제스(蔣介石)에 항복의사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0월 중화민국(中華民國)[1]의 천이(陳儀)가 대만성(臺灣省) 행정장관공서(行政長官公署) 행정장관 겸 경비총부 총사령(臺灣省警備總司令部總司令)으로 부임하면서 대만은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에 편입되었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1946년 1월 대만인들의 중화민국 국적 회복을 선포하였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시행한 초기 정책의 주된 방향은 일본에 노예화(日奴化)된 대만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다시 중국화시키는(去日化, 再中國化)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언어의 교체였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접수한 이후 공식어는 베이징어(北京語)가 기반이 되는 '중국어'로 바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문 및 일본어 사용이 모두 금지됐다. 다음은 1945년 해방 직후, 즉 전후(戰後)의 대만인들의 언어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30세 이상의 지식인들 중에 한문(漢文)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백 명 중에 한두 명이다. 30세 이하에서는 아예 찾기가 어렵다. 20세 이하 젊은이들은 일본어를 매우 유창하게 말하면서도 대만어(臺灣語)[2]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

1) 현재의 대만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공합작의 공동정부가 이끄는 중화민국을 가리킨다.

2)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소위 보통화普通話)와는 다른, 대만인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민남어(閩南語)를 가리킨다. 현재에도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이들보다 앞선 세대는 민남어, 혹은 또 다른 방언인 객가어(客家語)에 더 익숙하다.

3) 『新台灣』, 1946年 2月號.

당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대만 민중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음성언어는 일본어도, 국민당의 중국어도 아닌 '대만어'였다. 그러니까 전후 대만에는 대만어, 일본어, 중국어가 혼재하고 있었다.

1937년 이후 일제가 제국 전체를 전쟁총동원체제로 개편하면서, 대만문단에서 활발하게 집필활동을 했던 작가들 대다수는 일본어로 창작하도록 요구받았다. 특히 '전쟁기'[4]에 활동했던 젊은 작가들-장원환(張文環), 롱잉종(龍瑛宗), 뤼허뤄(呂赫若), 저우진보(周金波), 우신롱(吳新榮) 등-은 전 작품을 일본어로 창작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일본어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언어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종류의 능력이 아닌데다가, 새로운 언어로 문학작품을 집필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훨씬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단절로 인해 이 시기 왕성하게 활동하던 많은 대만인 작가들이 문학장에서 사라졌다. 롱잉종 같은 작가는 1946년 초반까지도 『중화일보(中華日報)』 일문판에 꾸준히 글을 쓰고 작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국민당 정부가 일문잡지 및 도서의 출판을 금지하면서 『중화일보』의 일문판마저 폐간되었는데, 이때 롱잉종의 나이는 30대 중반에 불과했다. 당시의 그에게 중국어로 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창작언어를 빼앗기고 문학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문학계로 돌아온 것은 이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5]

전후 상당 기간 동안 창작언어의 문제로 인해 대만문단은 외성

4) 대만신문학사의 시대 구분에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5) 전후 롱잉종은 다시 금융업계로 돌아갔다가 1976년 퇴직하였다. 이후 1980년 10월 25일자 『聯合報』 副刊에 중문 소설 「杜甫在長安」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문학 활동을 재개했다.

인(外省人)[6]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적 담론장의 언어가 일본어에서 중국어로 하루아침에 전환되면서, 이민족에 의한 강압적인 식민통치기에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던 본성인(本省人) 작가들은 문학장 안에서 퇴출되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는 중국어로 창작할 수 있는 외성인들에게로 돌아갔다. 작가진과 창작언어의 교체로 인해 대만문단이 전면 개편된 셈이었다.

따라서 대만문단의 대변환기 속에서 중문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간 본성인 작가의 존재는 정치사회적 조건이 초래한 전전(戰前) 문단상황과의 연속과 단절을 동시적으로 담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전후 대만문단의 특수한 상황을 여러 보도자료와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 뤼허뤄의 중문 소설 「月光光—光復以前」, 「冬夜」를 분석함으로써 전후 대만인들의 시대인식과 정체성 고민을 보이고자 한다. 문학은 당대의 대세, 즉 정치적·문화적 흐름, 사회적 요구/강제와 벌이는 인식적 투쟁이며, 동시에 작가 자신에게 스스로 답을 내기 위한 논리와 해석의 구성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성인들의 재/정계 권력 독점과 '국어'의 교체로 대표되는 전후 공간에서 본성인 작가 뤼허뤄의 고민과 갈등의 기록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

6) 외성인은 1945년 해방 이후 대만에 들어온 중국대륙 출신의 한족(漢族)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성인의 이주는 1945년 10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이동은 1949년 12월 이후이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국공내전에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후퇴할 당시 대만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해방 초기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7년까지 대만의 정계와 재계는 이들이 거의 독식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와 반대로 1949년 이전부터 대만에 살며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겪은 대만인들은 '본성인'이라고 구분해서 부른다.

Ⅱ. 펼치며

1. 전후(戰後) 초기의 환희와 절망의 이중주 – ‘국어’(國語)의 교체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화민국의 장제스가 일제의 항복 이후 아시아 각 지역의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카이로 선언은 대만 지역의 처리에 대해서 “대만과 펑후(澎湖) 일대 제도(諸島)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강제로 탈취한 지역이므로 반드시 중국에 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년 뒤 포츠담 선언에 “카이로 선언의 각 조항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대만의 중국 귀속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으로 대만은 이민족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대만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부터 일제의 패전 전까지의 기간을 ‘전쟁기’라고 부르며, 이 시기 발표된 작품들에 대해 ‘전쟁문학’ 혹은 ‘전쟁기 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일제 패전 이후를 ‘戰後’라는 용어를 통해 지시하는데, 특히 1949년 국공내전에서의 패배로 국민당이 대만으로 철수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전후 초기’라고 따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시기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의 광복 이후부터 1950년 6. 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한반도의 ‘해방기’와 상당부분 겹친다.[7]

---

7) 그런데 한국의 ‘해방기’를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역시 ‘전후’라고 명명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국이며, 패전국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전쟁 이후, 곧 ‘전후’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6. 25 전쟁의 당사자로서, 한국전쟁 이후는 한국에 있어 ‘전후’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전후’는 각각 다른 시기를 의미하며, 양국 모두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한 전쟁 당사국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만에서의 ‘전후’

‘전후’에 발표된 글들을 살펴보면, 대만 민중들이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조국’(祖國)-곧 중화민국으로의 회귀를 매우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줘류(吳濁流)의 『대만 개나리(台灣連翹)』의 일부이다.

> 10월 17일 조국에서 오는 제70군 3천명과 장관공서의 관원(接收官員)들이 함께 지롱(基隆)항에 도착했다. 이날의 그들을 환영하는 광경은 진짜 대단했다. 타이베이(台北)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타이중(台中), 타이난(台南), 가오슝(高雄) 등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군대가 지나가는 도로의 양쪽에는 인간 장벽이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섞여 있던 일본인들이 가만히 서 있는 모습에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학생, 청년단원, 군악대, 그리고 이어 시에(謝) 장군과 판(范) 장군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도 부대(大刀隊)와 예각(藝閣)도 확실히 적지 않았다.[8]

이밖에도 ‘대만인들은 새로 오는 행정장관 천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라든지 ‘기본적으로 모든 대만인들은 조국 중국으로의 회귀를 열렬히 지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만인들은 군정(軍

는 다소 모호해진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많은 대만인들이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로서만이 아니라 식민지인의 지위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쟁에 ‘동원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시각에 경도된 듯한 대만의 ‘전후’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태의 중층성을 단선화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일차적으로 밝히면서, 대만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후’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8) 吳濁流, 『台灣連翹』, 台北: 草根, 2011, pp.153-154. ; 「台灣人不可忘記的歷史事件 (2)」이라는 칼럼을 보면, “군대가 타이베이 시에 들어서자 길 양쪽을 꽉 메운 30만 시민들이 환호하며, ‘국군환영가’(國軍歡迎歌)를 소리 높여 불렀다.”라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삭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소유하고 있는 2011년판(초판은 1995년)에서는 동일한 문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http://www.taiwanus.net/roger/blood_228_2.htm

政)이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에 적극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 등 비슷한 내용의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9]

한편 대만에서는 이러한 전후 초기의 분위기와 함께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일제는 1933년 '국어 보급 10개년 계획(國語普及十箇年計劃)'을 세워 대만의 모든 부락에 한 개 이상의 일본어 교습소를 세운다는 원칙을 밝히고, 10년 안에 대만 총인구의 50% 이상이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습소는 12세에서 25세 이하 아직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 교육 실시를 목표로 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해 각 촌락에 간이 국어강습소를 열어 미취학 어린이와 7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다. 3개월 내지 6개월을 한 학기로 하고, 비용은 지방 주민이 부담하되 지방기관에서 보조를 하도록 했다.[10] 1932년에는 22.7%였던 대만의 일본어 사

9) 인용한 대로, 1945년 대만인들이 '광복'을 기뻐하고 국민당 정부의 대만 입도(入島)를 열렬히 환영했다는 신문보도와 기록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대만사, 대만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대만은 51년의 시간을 일본 식민지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대만인들이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군속으로 있었으며, 군인과 군속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당시 대만 전체 인구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달리 '광복'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국립대만대 역사학과의 저우완야오(周婉窈) 교수의 주장이다. "전쟁 기간 중 대만 출신 일본병의 처지는 각자 서로 달랐지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되레 새로운 사회에서 입장 난처한 과거와 형용하기 어려운 많은 고초를 품고 침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짊어져야만 했다. 마치 역사가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젊은 당신이 나라를 위해 출정하여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동포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서 국적을 잃고 다른 나라 국민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 새 국가가 다름 아닌 전쟁 중에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던 적국이라면! 역사가 당신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周婉窈 著,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손준식・신미정譯, 신구문화사, 2003, p.184.

10) 蔡盛琦, 「戰後初期學國語熱潮與國語讀本」, 『國家圖書館館刊』 一百年 第二

용인구는 1940년 이미 총인구의 51%를 넘었으며, 일제 패전 무렵에는 70% 이상에 달했다.[11]

외성인 출신으로 대만국제무역국 국장, 대만제당업공사 사장을 지냈던 왕이딩(汪彝定) 역시 비슷한 증언을 남겼다. "민국 34년 대만 수복(收復) 시에, 대만은 사실상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일본어만을 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토론해야 할 경우에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나 지방지역에서는 민남어를 사용했다. 당시 대만인들에게 일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만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공론장에서의 의견 발표, 정보 수집, 심지어 토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12]

일본어나 대만어 사용에 익숙해있던 대만인들은 조국으로의 복귀와 함께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배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광복이 되고 대만 거리의 골목마다 '국어'를 가르친다는 학원 간판이 잔뜩 걸렸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만 사람들은 난해하고 배우기 어려운 '국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서 파견된 관원들은 열정적으로 민남어를 공부했다."[13] 이는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 대만 파견원이었던 예밍쉰(葉明勳)의 기억이다. 이처럼 해방된 직후만 해도 대만인들은 자발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대륙에서 들어온 관원들 역시 대만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민남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삽시간에 대만 전역으로 번졌던 '중국어 열풍'은 금세 사그라졌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들어온 이후 불거진 수많

期, 2011, p.63.

11) 薛綏之, 「旅臺雜記」, 『北方雜誌』 6, 1947년 6월, p.32.

12) 汪彝定, 『走過關鍵年代—汪彝定回憶錄』, 商周出版, 1991, p.48.

13) 葉明勳 「不容青史盡成灰－二二八親歷的感受」, 『衝越驚濤的時代』, 台北: 新生報, 1990, p.206. ; 王建國, 『呂赫若小說研究與詮釋』, 台南: 台南市立圖書館, 2002, p.194에서 재인용.

은 사회문제와 관원들에 대한 불만은 중국어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 광복 초기 대만 동포들의 열광과 흥분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다시 만난 조국은 우리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했다. 조국의 정치 문화는 낙후되어 있어 우리를 상심에 빠뜨렸다. 우리가 가장 격분하는 것은 탐욕스럽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도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럽다는 것이다.[14]

1946년 10월에 이미, 외성인들이 대만 동포를 멸시하며 오만하게 굴고 있다, 이에 사람들이(諸君) 분개해 '국문'(國文) 공부를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고, '국어'(國語)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15]이 보이기 시작한다. 급기야는 일부러 일어를 사용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민보(民報)』의 '熱言'[16]이라는 고정란을 보면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조국에서 파견된 각 기관 인사들 대다수의 어리석은 악행을 목도하면서, 나중에는 선의와 호감이 점점 혐오로 바뀌었다. 비단 '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뿐만 아니라, 일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고의로 일어를 사용하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일문 언론매체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마도 이는 일종의 반동적인 기류(反動的傾向)일 것이다.[17]

나중에 내지[18]에서 온 동포들 중에는 어리석은 이들이 현명한 이

14) 「祖國的懷抱」, 『民報』, 1946년 10월 26일, p.1.
15) 「社論 勸勉學徒諸君」, 『民報』, 1946년 10월 1일, p.1.
16) 천왕청(陳旺成)이 집필하였다. 필명은 黃旺成이다.
17) 「熱言」, 『民報』, 1946년 12월 7일, p.1.
18) " … 迨後由***內地***來的同胞, 不肖多於賢達, 而又佔了優越的地位, 以致臺胞

> 들보다 더 많았지만, 우월한 지위를 꿰찼다. 이에 대만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결국 내·외성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겨버렸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반동적으로 일본인에 대한 악감정이 수그러들고 있다. 대만인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일어를 사용하고 일본어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현재 대만의 상황이고,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이다.[19]

국민당 정부와 관원들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점차 고조되던 분위기에서 중국어 배우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려는 '반동적인 기류'가 만들어진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바로 1946년 10월 25일부로 신문과 잡지의 일문판을 전면 폐지한다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는 행정장관공서와 관원들이 대만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방침이었다.

중국어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문판의 폐지는 너무 빠르고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과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이어졌다. 화롄현참의회(花蓮縣參議會)는 아직은 대만인들의 '국문' 능력이 낮기 때문에 행정명령 등을 알리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조치 시행의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관공서 소속 대부분의 간부들이 일어는 물론 대만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각종 문제 발생을 이유로 들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본성인들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국의 과도한 조치는 청장년층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만 높일 뿐이다. 억압정치를 펼쳤던 당시

們大形失望, 終至內外省人的感情膈膜, 日趨深刻." 문맥상 여기에서의 '내지'는 일제시기의 일본 열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이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社論 臺灣人要歸那裡去?」, 『民報』, 1947년 1월 21일, p.1.

의 일본조차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다음 해에 가서야 (대만어 사용을) 금지했었다"[20]와 같은 대만 민중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문란 폐지 조치는 강행되었고, 이는 대만인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어' 능력이 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최우선 요구 기준이 되면서 언어 문제는 정치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대만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작가, 언론인 등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0월의 정부 조치가 있기도 전인 7월 28일 '대만문화협진회'(台灣文化協進會)에서 전후 대만문학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며 린징난(林荊南)이 지적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 과거 일제시기 문학에 종사했던 이들 중, 약간의 재력이라도 있었던 이들은 일문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복 후에 그들은 모두 글을 구성하는 기술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들 중 8, 9명은 국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문학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글쓰기를 그만두고, 다시 국문으로 글을 쓰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21]

'국어'의 교체가 곧, 일제의 패망 직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만작가들이 전후 그 작품량이 급감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1940년대 재대(在台) 일본인 니시카와 미쓰루(西川滿)가 주편(主編)으로 있던 순문예잡지 『문예대만(文藝臺灣)』과 쌍벽을 이루며, 대만인들의 삶을 사실주의적으로 다룬 작품들을 주로 실었던 잡지가 바로 『대만문학(臺灣文學)』(1941년 5

---

20) 「日文廢止は時期尚早」, 『新新』 第六期, 1946년 8월 12일, p.16, 괄호 인용자.
21) 林荊南, 「賽珍珠女士的中國觀」, 『台灣文化』 1卷 1期, 1946년 9월, p.19.

월 26일 창간)이다. 『대만문학』은 일문 잡지로, 일본인 작가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대만인 작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대만문학』의 창간인이었던 장원환은 일제시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문단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작가였다. 하지만 그는 전후에 창작 활동을 멈추었다. "아마도 새로운 사회 체제에 적응할 수 없었던 데다가, 동시에 일문을 중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22] 장원환은 전후 줄곧 침묵하다가 1975년이 되어서야 일문으로 『地に這うもの』이라는 작품을 일본에서 먼저 출판한 후, 그것을 다시 중문으로 번역해 『在地上爬的人』을 출간했다. 일제시기 첫 소설 「파파야 나무가 있는 마을(パパイヤのある街)」이 일본의 잡지 『개조(改造)』에서 가작을 수상하며 대만문단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롱잉종이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문단에서 사라졌다가, 1980년 중문 소설을 발표하며 복귀한 것과는 또 다른 선택이었다.

2. 반복되는 악몽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月光光-光復以前」, 「冬夜」의 저자인 뤼허뤄는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일문으로 마지막 작품을 남긴 장원환이나, 30여 년의 공백 끝에 중문으로 작품 활동을 다시 이어간 롱잉종과도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1935년 1월 일본의 유명한 좌익 문학잡지 『문학평론(文學評論)』 2권 1호에 「소달구지(牛車)」가 실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1936년에는 후펑(胡風)이 「牛車」를 중국어로 번역해 『山靈-朝鮮臺灣短篇小說集』에 수록하여 중국에서도 소개되었다. 이후 『대만신문학(臺灣新文學)』, 『대만

22) 池田敏雄著, 「關於張文環的『臺灣文學』雜誌的誕生」 『小說筆記』, 葉石濤譯, 1983, p.57.

문학』, 『대만예술(臺灣藝術)』 등의 문학, 예술 잡지에 일문으로 창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1943년에는 「財子壽」라는 작품으로 제1회 대만문학상(第一屆臺灣文學獎)을 수상하는 등, 뤼허뤄는 장원환, 롱잉종 등과 함께 일제시기 대만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대만에서 뤼허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90년 이후의 일이다. 사회주의에 경도된 작가의 행적으로 인해 1970년대 말까지도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79년 7월 종자오정(鍾肇政), 예스타오(葉石濤), 장헝하오(張恆豪), 린루이밍(林瑞明), 양즈차오(羊子喬) 등이 광복 전 대만문학작품을 엮어 『광복전 대만문학전집(光復前臺灣文學全集)』 여덟 권을 펴냈다. 그 중 제5권 『牛車』에 정칭원(鄭清文)의 번역으로 뤼허뤄의 일문소설 7편이 실렸다. 이후 1995년에 『뤼허뤄소설전집(呂赫若小說全集)』이 출간되면서, 일문소설 외에도 그의 산문과 4편의 중문소설이 함께 소개됐다.

1990년대 중반 뤼허뤄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뤼허뤄의 중문소설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쉬쥔야(許俊雅)의 언급이 가장 빠른데, "네 편의 중문 작품은 일본과 조국 통치 하에 살았던 대만인들의 진면목을 기록했다. 동시에 이 작품들을 통해 뤼허뤄의 사유전환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다"[23]라고 평가했다. 또 뤼허뤄의 일기를 번역 출간한 린즈제(林至潔)는 「呂赫若最後作品-冬夜之剖析」에서 자신 역시 직접 겪은 '경험자'(過來人)의 위치에서 사회 상황과 뤼허뤄의 「冬夜」를 교차적으로 보임으로써 당시 사회상황과 대조하여 작품이 확보한 전형성을 밝혔다.[24] 또 천팡밍(陳芳明)은 「紅色青年呂赫若-以戰後

23) 許俊雅, 「冷筆寫熱腸——論呂赫若的小說」, 『臺灣文學散論』, 臺北 : 文史哲出版社, 1994년 11월.

24) 林至潔, 「呂赫若最後作品-冬夜之剖析」, 『賴和及其同時代的作家 : 日據時

四篇中文小說為中心」에서 「月光光-光復以前」이 단순히 황민화정책을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당시 국민당 정부가 밀어붙이던 국어정책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 '대만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광복 직후의 흥분과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상실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이후 「冬夜」에 와서는 대만의 운명을 여성인물에 빗대어, 국민당 정부에 접수된 이후 대만은 다시 제국주의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25] 한편 왕젠궈(王建國)는 뤼허뤄의 일문소설부터 중문소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열쇠어를 '家'로 보고, 표면적인 가정사 문제에서 가족의 와해, 재건의 문제로 주제의식이 심화되었다고 읽었다. 전후 「月光光-光復以前」에서 조국의 언어를 새롭게 공부함으로써 대만인의 조국귀속과 정체성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즉, 진정한 의미의 '귀가(回家)'가 발생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곧 발표된 「冬夜」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식민주의적인 가부장정권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되었으며, 대만인들은 다시 정체성과 귀속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26]

뤼허뤄는 첫 작품부터 줄곧 일문으로 창작활동을 하던 작가였으며, 1945년 8월까지도 『대만시보(台灣時報)』 제27권 제8호에 일문으로 「風頭水尾」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가 첫 중문소설을 발표한 시기는 놀랍게도 1946년 2월이었다. 당시 뤼허뤄의 나이는 33세였다. 전후 초기 70%에 달했던 대만인들의 높은 일본어 사용률과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30대에서의 중문 해독 가능자 비율을

期台灣文學國際學術會議』, 1994.

25) 陳芳明, 「紅色青年呂赫若-以戰後四篇中文小說為中心」, 『第二屆台灣本土學術會議』, 1996년 3월.

26) 王建國, 「第三章 戰後四篇中文小說對文化認同的詮釋」, 『呂赫若小說研究與詮釋』, 台南: 台南市立圖書館, 2002, pp.185-257.

감안해볼 때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뤼허뤄의 빠른 창작언어 교체/전환의 원인으로 우선 작가 개인의 관심사와 이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일기에서 그 단초를 타진해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일본 유학 시절 중에 쓴 1942년 3월의 일기이다. "오늘 『北支』 잡지를 두 권 샀다. 중국인의 생활사, 『紅樓夢』을 희곡으로 각색하고 싶다."(3일)[27], "오늘밤은 몸이 좀 나아져서, 작년부터 거의 손대지 못하고 내버려두다시피 했던 『紅樓夢』을 다시 번역했다. 10년이 넘게 걸리더라도 이 걸작을 번역해서 널리 알리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대만인으로서의 의무이다."(14일)[28] 또 1943년 6월 7일자에서는 "오늘은 『詩經』, 『楚辭』, 『支那史研究』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샀다. 중국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무이다."[29]라고 적고 있다. 뤼허뤄는 대만의 자연환경, 대만인들의 생활모습, 전통적인 세시풍습과 풍속 등 대만 본토 고유의 대만성(臺灣性)에 주목했고, 이를 자신의 일문 작품 속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대륙과의 단절을 전제로, 한족(漢族)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뤼허뤄의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족 정체성의 연속선 위에서 상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이나 고유한 문화적 요소에도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 1944년 뤼허뤄의 일문 소설 「清秋」의 주인공 야오쉰(耀勳)은 청조(清朝)에서 '문수재'(文秀才)를 지낸 조부에게 굉장한 존경과 애정을 품고 있다. 또 행정가·정치가를 선발하는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시문(詩文)을 지어야 했던 그 시절을 한없이 동경하는[30] 인물로 등장

27) 呂赫若著, 『呂赫若日記』, 種瑞芳譯, 台南: 國家台灣文學館, 2004, p.77.
28) 같은 책, p.84.
29) 같은 책, p.358.
30) 呂赫若著, 「清秋」, 『呂赫若小說全集 下』, 林至潔 譯, 印刻出版, 2006, pp.

한다. 이외에도 「合家平安」(1943), 「柘榴」(1943) 등의 작품에서도 중국/대륙의 문화적 요인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처럼 뤼허뤄에게 '조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일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1942, 3년 당시에도 중문을 읽고 활용하는 데 있어 '번역'을 언급할 정도로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뤼허뤄의 중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전전부터 이미 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그가 46년과 47년 사이에 이미 4편의 중문 소설을 발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49년에는 타이베이 제일여중(台北第一女中)에서 음악교사를 했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이 때는 일문뿐만 아니라 일본어 사용까지도 금지됐던 시기로, 학교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중국어 능력이 요구됐었다.

뤼허뤄의 '조국'에 대한 깊은 호의와 기대는 대만민속연구자 이케다 토시오(池田敏雄)가 남긴 다음의 기록에서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패전 직후, 일이 있어 양쿠이(楊逵) 형님을 찾아갔다. 나와 타테시 테츠오미(立石鐵臣) 형님이 타이중에 도착했을 때가 마침 (대만인들에게는 해방 후) 처음으로 맞는 쌍십절이었다. 거리는 환희에 차 있었고, 진한 해방의 기운이 느껴졌다. 거기에서 뤼허뤄 형님과 마주쳤는데, 몹시 들떠 있어서 내가 예전에 알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31] 하지만 정작, 해방된 기쁨에 딴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던 뤼허뤄가 전후 발표한 4편의 중문 소설 어디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먼저 1946년 2월과 3월 잇달아 발표한 중문 소설 「故鄉的戰事」 一[32], 二[33]는 일제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뤼허뤄는 해방의 기쁨,

514-515.

31) 池田敏雄, 「張文環兄及其周邊事」; 呂赫若著, 『呂赫若小說全集 下』, 林至潔 譯, 印刻出版, 2006, p.736에서 재인용.

32) 『政經報』 2卷 3期에 발표.

33) 『政經報』 2卷 4期에 발표.

대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동화·황민화 정책에 대한 비판, 대만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일제시기 자신이 다루지 못했던 소재를 가지고 전후 첫 소설을 썼다.

2.1. 두 개의 '국어'와 대만어 - 「月光光-光復以前」[34]

사실 세 번째 소설 「月光光-光復以前」(이하 「月光光」)의 소설적 배경 역시 앞선 두 편과 마찬가지로 일제시기이다. 심지어 다루고 있는 소재는 식민당국의 동화 정책 아래 실시되었던 '국어가정'(國語家庭)이다. 소설은 미군 폭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경찰들이 대만인들을 강제 퇴거시키면서, 좡위추(莊玉秋)네 여덟 식구가 22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 새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알리며 시작한다. 좡위추는 10여 일이 지나도록 집을 구하지 못하다가, 아주 어렵게 교외 지역에서 겨우 방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특이하다.

> "자네에게 세를 줄 수 있긴 한데, 단, 자네가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네. 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고, 순수하게 일본식 생활방식을 따라 사는 거! 나는 이 마을의 이장(隣組長)으로서 (마을사람들) 모두가 일본인과 똑같은, 모범적인 마을로 건설하고 싶기 때문일세.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지. 자네는 어떤가?"[35]

좡위추는 급한 마음에 본인이 훨씬 더 '일본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네는 '국어가정'이라면서, 오히려 거짓말로 큰

---

34) 『新新』 第7期, 1946년 10월 17일.
35) 呂赫若著, 「月光光-光復以前」, 앞의 책, p.630, 괄호 인용자.

소리를 친다. 그리고 이사 전부터 좡위추 부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어린 세 자녀에게 절대 대만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준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아이들을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몰래 밖에 나가 놀며 대만어로 이야기하다가 이웃에게 들키는 일이 벌어지고, 좡위추는 아이들의 바깥출입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한다. 좡위추의 노모 역시 일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이다. 결국 참다못한 노모가 대만인이 대만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사냐며 아들을 나무라고, 좡위추는 마음을 바꿔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 달빛을 받으며 대만어로 전래동요를 크게 부른다.

전체 사건의 얼개는 일제시기 일본어 강제와 그로 인해 대만인들이 받았던 고통과 관계되어 있다. 또한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일본인 천하'에서 원해서이든 강제로이든 모두가 황민화운동의 공범이거나 조력자였음을 폭로하고 날카롭게 성찰하는 의미도 읽힌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고 싶은–식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집주인과, 가족의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둬 생활하게 만든 좡위추는 그의 노모와 아이들의 시선에서 동일하게 부당하고 억압적이다. 그러므로 좡위추는 식민당국의 황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이면서 암묵적인 동의와 조력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위치를 점한다.

하지만 필자는 「月光光」에는 뤼허뤄가 숨겨 놓은 또 하나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작품이 발표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月光光」은 『新新』 第7期에 발표되었는데, 일문판 신문과 일문란의 폐지 조치 시행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었다. 『新新』 第6期에 이미 일문 폐지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글이 실렸던 것을 떠올린다면, '국어가정'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의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다.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역시 '국어'의 전환이 한

차례 있었다. 일제의 일본어에서 조선어가 '국어'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상황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광복 이후 대만에서 '국어'의 지위를 차지한 언어는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대만어가 아니었다. 대만의 광복은 '조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했기 때문에, '조국'의 언어가 새로운 '국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광복 후에 모두 새 '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어 열풍'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일제시기 식민당국이 강력하게 일어운동을 추진해 1945년을 전후로는 일어 해독자율이 전체 대만인 인구의 70%에 달했다는 통계 수치가 있지만, 실제 일어로 말할 수 있거나 일문 독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와는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는 '국어강습소'를 1년 정도 다녔어도 일어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36] 대만의 독서시장이 성숙되고 문단이 성립되었다고 하지만, 일어소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일본 유학을 한 소수의 지식인에 국한되었다[37]는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장소에서의 대만어 사용을 금지했던 황민화운동 시기 총독부 관리하에 있던 대만방송협회는 1943년 10월 1일부터 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쟁 수행에 따른 국가와 총독부의 방침을 이해시키기 위해 대만어 위주의 제2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38] 즉, 당국이 발

36) 1940년 4월 10일 『臺灣日日新報』에는 한 소년이 타이베이 주지사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국어강습소'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글이 실렸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1년 동안 국어강습소를 다녔지만, 일어 문장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37) 中島利郎著, 『日治時期臺灣研究的問題點」, 彭萱譯, 『臺灣文藝』 46, 2003년 4월, pp.306-307.

38) 손준식, 「동화와 개화의 상흔-식민지 타이완 일어」, 『식민주의와 언어-

표한 높은 통계 수치와 달리 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만인들의 수가 상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일제시기 학령아동(6-12세)의 취학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도 확인된다. 대만아동의 취학율은 1932년 35.9%에서 1941년 61.60%[39], 44년에는 71.31%[40]까지 증가한다. 이 수치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많고 결석율과 중도 퇴학율도 높았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근대사회의 식자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학령인구의 취학율이 (한국은) 1930년에 15%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이미 대만아동의 취학율은 한국의 2배에 달하는 30.6%에 이르렀다"[41]는 연구를 참고할 때, 일제말기에 가면 학령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학교 교육을 받았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제말기 대만의 이러한 사정이 시사하는 바는 당시 대만인들의 언어생활이 일어를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소설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좡위추와 그의 아내,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취학연령의 아이 두 명은 일어 사용에 그런대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예순이 가까운 노모와 세 명의 미취학연령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대만어만을 사용해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좡위추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장애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만어로 소통했다는 말이 된다. 좡위추가 세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노모의 항변을 들을 때도 기반이 된 것

대만・인도・한국에서의 동화와 저항』, 도서출판 아름나무, 2007, p.26.

39) 許佩賢, 「日治末期臺灣的教育政策：以義務教育制度實施為中心」, 『臺灣史研究』 第20卷 第1期, 2013, p.151 표1 참조.

40) 許佩賢, 「初等教育」, 『臺灣大百科全書』, https://nrch.culture.tw/twpedia.aspx?id=3809.

41) 周婉窈, 「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 『海行兮的年代』, 2003, p.53.

은 대만어였다. 즉 대만어가 이들의 공용어인 것이다. 이 구조는 일제시기 한반도의 사정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와는 달리, 광복 이후에도 노모와 세 아이들로 대표되는 대만어 사용자들은 전혀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좡위추 부부와 취학아동 두 명까지도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문제는 광복 이후 좡위추 가족의 공용어가 '국어'의 지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국어'로 그 자리가 대체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月光光」에는 광복 이후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 작가는 구체적인 내용상의 언급으로써가 아니라 일제시기 대만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어/'국어' 강제 정책을 비판하는 소설을 국민당의 중국어/'국어' 강제 조치가 시행된 시점에 발표함으로써 둘 사이의 상동성(相同性)을 환기시킨다.

소설 속에서 노모와 세 아이들은 일어/'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한다. 그들에게 대만어 사용을 금지하는 요구는 발화를 금지하는 행위이다. 노모와 세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권을 빼앗김으로써 그야말로 '실어증' 상태에 놓인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는데, 노모는 "일본어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지내고 바깥일은 전적으로 좡위추의 아내에게 맡겨 처리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지루한 방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쳐다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42] 이들은 철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낸다. 노모와 세 아이들은 일어/'국어'를 매개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됨은 물론, 자신을 표현할 수단을 부정당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다. 그런데 이들의 곤경은 일어/'국어'를 중국어/'국어'로 환치하는 순간, 앞서 인용했던 왕이딩의 증언-전후 초기 대만인들에게 일어 사용 금지

42) 呂赫若著, 「月光光-光復以前」, 앞의 책, p.634.

는 공론장에서의 의견 발표, 정보의 수집, 심지어 토론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와 정확하게 오버랩 된다. 더욱이 이번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좡위추 가족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마침내 노모는 이 상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서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永住), 지금처럼 대만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니! 우리는 대만사람인데, 대만사람한테 대만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저 불쌍한 애들 야윈 모습 좀 봐라. 니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한다면, 나랑 재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다!"[43]

여기에서 필자는 '대만인'과 '대만어'가 연동해서 등장하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뤼허뤄는 대만인의 정체성을 중국/대륙 한족과의 연계성 속에서 상상했었다. 뤼허뤄 연구자로 유명한 린즈제(林至潔)는 뤼허뤄의 빠른 중국어 습득에 대해 "그가 대만어를 통해 빠르게 중문의 문자적 함의를 이해했다"[44]고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는 뤼허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천원빈(陳文彬)의 「國語와 臺語」라는 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 같다.

> 우리는 국어가 본래 북방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대만어 또한 중국의 방언 중 하나이다. 즉 대만어와 국어는 사촌형제 사이이다. 즉 동일한 언어에서 점점 변해 다른 가지로 갈라져 나온 것이다. 그래서 둘은 어법도 상당히 겹치고, 어휘도 (한족의 어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다. 지금은 어음(語音)이 보기에, 아니

43) 같은 책, p.635.

44) 林至潔, 「呂赫若最後作品–冬夜之剖析」, 『賴和及其同時代的作家』, 1994, p.3.

> 듣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비교 연구해 보면 많은 원리(法則)들을 발견해 변화의 체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45]

실제 '중국어 열풍' 당시 대만어를 통해 중국어/'국어'를 공부하자는 류의 주장과 방법이 많이 소개됐었다. 여기에서의 대만어는 중국어/'국어'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국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어/'국어' 보급에 유리한 도구로서 그 의미를 규정 받았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노모의 항변을 통해 대만어는 대만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담지물로 인정된다. 대만어는 대만인을 대만인답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어/일문에서 중국어/중문으로의 '국어' 교체가 대만인들 사이의 소통을 전담하는 대만어의 존재를 인식시켰다. 일본 천하이든 중국 천하이든 대만인들은 '대만어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자각이다. 37년 일제에 의해 한문(漢文)란이 폐지되고, 광복 이후 다시 국민당 정부에 의해 일문란이 폐지되는 10년 사이에도 대만인들은 줄곧 대만어를 사용했다. 청조 말에 태어난 육순 노모와 일제시기 태어나 성장한 좡위추 부부, 그리고 소설의 시점상 앞으로 몇 년 후 국민당 정부 아래 학교를 다니게 될 세 명의 아이들을 한데 묶어주는 언어는 대만어이다.

뤼허뤄는 '특정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月光光」을 발표함으로써, 일어/'국어'가정의 폭력성에 비치는 중국어/'국어'의 그림자를 환기시켰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뤼허뤄의 문제의식이 단지 무리한 중국어/'국어' 교체/전환에 대한 비판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뤼허뤄는 '국어'들의 교체/전환과 별개로 대만어가 대만인들의 실제 삶을 구성하는 언어라는 사실에 착목했다. 그러므로 뤼허뤄에게 대만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대만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이다. 특

45) 陳文彬, 「國語와 臺語」, 『人民導報』, 1946년 4월 21일.

히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심상치 않은데, 왜냐하면 대만어 사용을 금지하는 주체, 곧 대만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체의 등장은 이미 그 자체로 대만인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만인과 '조국'에서 온 이들과의 구분을 지시한다.

이는 「故鄉的戰事 一」에서 '나'가 일본인을 조롱하듯 "쯧쯧, 일본인 당신들도 참 멍청하다. 자기 집 어린 애들 하나 못 속이면서, 어떻게 오천 년 역사와 문화를 가진 황제(黃帝)[46]의 자손들을 속일 수 있게는가?" 하고 혼자 되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때만 해도 뤼허뤄는 분명 대만인을 '조국'의 중국인과 연계해서 상상했다. 하지만 「月光光」에 이르면 대만인은 대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금지하는 힘과 맞서는 일방(一方)으로 재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을 받으며 좡위추와 아이들이 대만어로 전래동요를 부르자 사방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다. "끼익하고 창문을 여는 소리, 뛰어나오는 소리, 가까이 다가오는 나막신 소리로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진다."[47] 그는 이 소리를 이웃들이 "놀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在起驚駭起來的)이라고 확신한다. 좡위추 가족이 대만어 금지에 순응하고 스스로 대만어 사용을 삼갈 때는 어린 애들이 대만어로 재잘대는 소리에도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던 이들이 좡위추 가족이 모두 나와 큰소리로 대만어 노래를 부르자 '놀라고' '두려워한다'. 누구 하나 과거에 그랬듯이 "누가 지금 대만어로 말하고 있어! 누구야!"[48]라고 소리 지르지 못한다. 대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

46) 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는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제왕(帝王)으로, 중국 문명의 시조로 여겨진다.

47) 「月光光-光復以前」, 앞의 책, p.636.

48) 같은 책, p.633.

2.2. 본성인(本省人)이 '된' 사람들 – 「冬夜」[49]

중국어/'국어'의 강제가 촉발시킨 대만어/대만인에 대한 뤼허뤄의 각성은 「冬夜」에 이르면 보다 본격화된다. 작품은 여성 화자 양차이펑(楊彩鳳)과 외래 요인이 초래하는 그녀의 불행한 운명이라는 설정을 통해 외부적 환경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만인들의 수동적인 지위와 불운을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차이펑은 술집의 종업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술집에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 시기 대만사회를 전시체제로 정비하면서 개별적인 상거래를 금지하고 식민당국이 물자를 관리·감독해 분배하는 통제조합 체계를 운영했는데, 원래 그녀는 육류소매통제조합(肉類小販統制組合)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통제조합이 해산되자 실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정치 사회체제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진보의 방향이든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필요악이든지 간에 개인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발생한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구제책을 통해 보상하려는 국가나 정부로 대표되는 행정기구의 역할이다.

식민정부는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존이 위태로워진 개인의 삶에 무관심하고 모든 결과를 불행에 빠진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정기구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뤼허뤄는 자신의 첫 번째 작품 「소달구지」에서 양톈딩(楊添丁)의 불행을 통해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설에서 양톈딩이 거위를 훔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벌금 2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소달구지를 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소달구지에 앉아 졸다가 그만 경찰에게 걸렸

49) 『台灣文化』 2卷 2期, 1947년 2월 발표.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소달구지」가 일본인 경찰로 대표되는 강압적인 식민 통치와 대만인들에 대한 멸시를 비판하고 있다는 분석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양톈딩의 삶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문물인 화물운송차의 등장과 신작로의 개설이었다. 많은 양의 농산물을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운송수단의 등장은 분명 문명의 이기이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도로를 만들고, 안전을 위해 행인과 소달구지의 도로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이다. 다시 말해, 그 자체만으로 식민당국의 식민지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짜 비판의 지점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도태되는, 양톈딩으로 대표되는 이들에 대한 무자비할 정도의 무관심이다. 식민당국에게 식민지인은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켜 보호해야 하는 경계 안의 '우리'가 아니다. '우리' 바깥의 '그들'의 삶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식민지의 문명화를 도모한다는 허울 좋은 식민체계가 갖는 잔인성의 핵심이다.

그런데 전후 초기 행정당국의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대만사회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조국'에서 파견된 행정장관공서는 대만사회가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 수많은 청년들이 실직하고, 사람들은 '쇠비름' 나물로 겨우 끼니를 때운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고, 살길도 막막하다. 탐관오리들의 숫자는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고, 악덕상인들은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속인다. 옳고 그름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가?[50]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진데다가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대만 민중

50) 『新知識』 創刊號, 1946년 8월 15일, p.13.

의 삶은 점점 더 처참하게 되었다. 특히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쌀 수요가 폭증하면서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여기에 혼란을 틈타 매점매석을 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물가는 더욱 요동을 쳤다. "당시 매점매석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던 부류의 대다수는 전후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외성인이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혼자 온 남성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만에서 큰돈을 벌어 배부르고 살 만해지니 음탕한 욕망이 생겼다. 자연히 육체적 쾌락을 얻기 위해 수시로 술집을 드나들었다."[51] 차이펑의 두 번째 남편인 궈친밍(郭欽明)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소설 속에서 궈친밍은 저장(浙江) 출신으로 나이는 26, 7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호라고 소개된다. 그는 술집에서 마주친 차이펑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는데, 하루는 차이펑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죽자고 총으로 위협해 결국 그녀를 굴복시킨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둘은 결혼까지 한다. 궈친밍은 차이펑의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지원병'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녀를 매우 동정한다.

> "이렇게 불쌍할 수가! 당신 남편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살해된 거요. 그리고 당신 역시도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함을 겪었소. 하지만 이제 안심하오. 나는 결코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오. 당신을 해치지 않아. 반대로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무요. 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유린당했던 대만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줄 거요. 이것이 내가 대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오."[52]

---

51) 王建國, 앞의 책, p.241.

52) 呂赫若著, 「冬夜」, 『呂赫若小說全集 下』, 林至潔 譯, 印刻出版, 2006, p.646.

궈친밍은 일본 제국주의와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대만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면, '조국'에서 온 자신들은 대만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차이펑을 다시 술집으로 내몬 것은 바로 궈친밍이었다. 그는 자신이 매독에 걸린 이유가 차이펑이 결혼생활 중에도 몰래 술집에 나가 몸을 팔다가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이라며 누명을 씌운다. 결혼 6개월 만에 차이펑은 이혼을 당하고 궈친밍이 지불했던 결혼보증금까지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녀는 다시 술집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매춘까지 하게 된다.

차이펑의 불행이 일제의 징집명령이 초래한 첫 번째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는 '조국'으로의 회귀라는 '전후'가 가져온 실직이었다. 차이펑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그녀뿐만 아니라 친정식구들의 생계까지 위태롭게 만들었고, 그녀 스스로 술집에 발을 들여놓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몸을 파는 지경에까지 내몰린 것은 불쌍한 차이펑을 구해주겠다던 '조국'에서 온 궈친밍 때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전후, 외성인은 그녀의 불행이 심화되는 결절에 놓여 있다. 뤼허뤄는 꽤나 '노골적으로' 차이펑의 불행한 운명에 대만인들의 불행을 겹쳐 그렸다. 특히 작가는 차이펑이 절망으로 굴러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대만 동포를 사랑하고 구해주겠다'는 궈친밍의 강변을 위치시킴으로써, 그것이 소설 전체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공허하게 울리도록 만들었다.

「冬夜」에는 첫 번째 남편 린무훠(林木火), 두 번째 남편 궈친밍 외에 차이펑의 운명과 깊게 관계하는 남성이 한 명 더 등장한다. 그녀가 매춘을 시작하고 몇 차례 그녀의 손님으로 찾아왔던 거우춘(狗春)이다. 그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미군에 투항해,

다시 대만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소설은 오랜만에 자신을 찾은 거우춘 옆에서 차이펑이 자신의 불행을 곱씹어보던 중에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전한다. 수상한 소동이 감지되자마자 거우춘이 권총을 바지춤에 차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방 밖으로 나온 차이펑은 총을 든 낯선 사람들로 출입구가 막혀 있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뒤로는 희미하게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린다. 무언가를 쫓는 듯한 긴박한 움직임과 계속 이어지는 총소리에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낯선 이들은 성난 소리로 "나가지 마시오! 현재 토비떼가 저항을 하고 있으니 기다리시오!",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시오!"라고 고함을 친다.

그런데 차이펑은 자기 눈앞의 저들이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곳이 더 안전하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들은 매춘행각을 단속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제압하려는 상대는 '토비떼'로 불리는 사람들이며, 아마도 권총을 들고 사라진 거우춘과 그 일행들일 것이다. 그런데도 차이펑은 그들이 보장한다는 안전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토비떼'가 아니라, 총을 든 낯선 그들의 존재가 위협적이고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펑은 달리다가 고꾸라지고 다시 달리기를 반복하며 어둠 속으로 내달린다. 결국 총소리는 도망가는 그녀의 등 뒤에서도 울린다.

그런데 "총을 든 낯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음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만이 광복한 후로, 무장한 국군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 걸핏하면 (총구를 겨누고) "쏜다! 진짜 쏜다!" 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실제 총을 쏘기도 한다."[53] 당시 대만사

53) 林一命, 「請下決心取消可怕的口號--動不動就說"開槍！"」, 『人民導報』, 1946년 5월 3일, 괄호 인용자.

회는 궈친밍으로 대표되는 외성인 경제권력과 국민당 정부와 함께 들어온 무장 군인들을 향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소탕하려고 하는 '토비떼'는 단순한 불량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천이 행정당국의 실정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세력에 가깝다. 그리고 소설은 두 세력의 무력충돌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실제 소설 속의 총소리는 소설이 발표되고 20여 일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뤼허뤄가 「冬夜」에서 2·28 사건을 예견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소설은 허구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기능을 하므로 일견 수긍할 만하다. 「冬夜」와 2. 28 사건 사이에 밭은 시간 선후가 끼어 있어 공교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차이펑과 거우춘이라는 인물 형상화를 통해 그리고자 했던 바는 보다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총을 든 낯선 이들 앞에서 차이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다는 부분이었다. 22년 동안 그녀의 삶은 자신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없이 남성으로 형상화된 외부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녀는 '머무르라'는 요구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금지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설령 그 선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순순히 낯선 이들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어두운 골목으로 재빠르게 달음질한다. 작가는 차이펑의 선택을 빌려 대만공동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 하나 거우춘이 총을 들었다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대만인의 손에도 국민당의 '국군'들과 마찬가지로 총이 쥐어졌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양편이 모두 무기를 들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총을 들고 서 있는 낯선 이들과 몇몇의 동행을 거느린 거우춘 사이

의 수적인 불균형 때문이다. 거우춘의 손에 들린 권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과 관련되어 있다. 거우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거우춘 자신이다. 아무도 대신해서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불안한 소동을 감지하자마자 권총을 들고 달아난다. 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외치는 낯선 이들이 결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차이펑의 판단과도 맞닿아있다.

「冬夜」에서의 차이펑과 거우춘의 선택은, 대만어에 대한 자각이 촉발한 '대만인은 누구인가'라는 뤼허뤄의 인식의 변화가 현실적 행동에 대한 촉구로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뤼허뤄는 「冬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창작활동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개혁 움직임에 뛰어들었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전후 대만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어' 교체에 따른 대만인들의 곤경을 살펴보았다. 또 '국어' 교체가 가져온 대만문단의 상황과 그 흐름에서 다소 특별한 지위를 점했던 뤼허뤄의 중문 소설 「月光光-光復以前」과 「冬夜」 두 편을 함께 독해했다. 여기에서 필자는 뤼허뤄가 국민당 정부의 중국어/'국어' 교체의 강제를 비판하는 데에서 대만어라는 존재가 담보하는 '대만인'이라는 자각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자각은 「冬夜」에 이르러서는 천이 행정당국의 실정과 외성인들의 정치/경제 권력의 독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개혁과 저항의 의식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았다. 또 이 시기 뤼허뤄가 외부 세계의 혼란과 폭력으로부터 대만인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직접 행동을 통한 현실 개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뤼허뤄의 대만인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만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현실적 움직임이, 지금 대만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독(統獨) 논란과 즉각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뤼허뤄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1947년 2·28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중공지하당 기관간행물인『光明報』편집과 출간에 관여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뤼허뤄가 대만공동체와 국민당 정부, 중국/대륙 사이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민지 시기 한반도와 대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대동아문학자대회' 같은 식민제국의 정책적 기획 하에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접촉과 교류를 강제한 것과 별개로, 한반도인과 대만인은 이미 빈번하게 왕래하고 접촉했다. 신채호 선생은 1928년 대만의 지롱에서 체포되어 다롄(大連)의 뤼순(旅順)감옥에서 순국했다.

1927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대만의 타이중을 선택하고 서점에서 일하고 있던 조명하 의사는 대만에서 일본 육군 대장 구니노미야 구니요시(久邇宮邦彦王)를 척살하려다가 붙잡혀 타이베이 감옥에서 순국했다. 또 의열단이 처단을 맹약했던 일곱 명의 악인 명단에는 대만총독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만의 '第一才子'라 불리는 뤼허뤄(呂赫若)는 사실 필명인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작가이름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곧 장혁주의 '赫'과 郭沫若의 '若'이다. 또 일본 유학 중에 쓴 뤼허뤄의 일기를 보면 "토호(東寶)극장에서 열린 '제2차 토호무도대회'에서『카르멘』을 상연했다. 처음으로 조선 무용수 최승희 여사를 직접 봤다"[54]는 구절도 눈에 띈다. 이후 냉전구도 아래에서

54) 呂赫若著,『呂赫若日記』, p.54.

도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꽤 밀접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발생한 일련의 외교적 사건들과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등의 이유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배신감과 분노, 묘한 경쟁심이 복잡하게 얽힌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본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대만에 대해 거의 무지에 가깝게 무관심하거나,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값싸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대만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일원이며,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상대국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의 기류까지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한국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자기편이 되어달라는 암묵적인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중층적인 관계 및 중국, 일본과 이웃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세계적 정세를 꿰뚫어보는 전망과 고도의 전략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적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공동체를 지키고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대만과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근대 시기 한반도와 대만의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힘을 보탰던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문학 연구를 통해 이 작업에 미미한 도움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참고문헌

① 작품

呂赫若著,「清秋」,『呂赫若小說全集 下』, 林至潔 譯, 印刻出版, 2006.

呂赫若著,「冬夜」,『呂赫若小說全集 下』, 林至潔 譯, 印刻出版, 2006.

② 논저

주완요(周婉窈) 著,『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손준식・신미정譯, 신구문화사, 2003.
손준식,「동화와 개화의 상흔–식민지 타이완 일어」,『식민주의와 언어–대만・인도・한국에서의 동화와 저항』, 도서출판 아름나무, 2007.
池田敏雄著,「關於張文環的『臺灣文學』雜誌的誕生」『小說筆記』, 葉石濤譯, 1983.
汪彝定,『走過關鍵年代—汪彝定回憶錄』, 商周出版, 1991.
林至潔,「呂赫若最後作品–冬夜之剖析」,『賴和及其同時代的作家 : 日據時期台灣文學國際學術會議』, 1994.
許俊雅,「冷筆寫熱腸––論呂赫若的小說」,『臺灣文學散論』, 臺北 : 文史哲出版社, 1994.
陳芳明,「紅色青年呂赫若–以戰後四篇中文小說為中心」,『第二屆台灣本土學術會議』, 1996.
王建國,『呂赫若小說研究與詮釋』, 台南: 台南市立圖書館, 2002.
周婉窈,「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海行兮的年代』, 2003.
呂赫若著,『呂赫若日記』, 種瑞芳譯, 台南: 國家台灣文學館, 2004.
吳濁流,『台灣連翹』, 台北: 草根, 2011.
蔡盛琦,「戰後初期學國語熱潮與國語讀本」,『國家圖書館館刊』一百年 第二期, 2011.

③ 잡지

『新台灣雜誌』, 1946年 2月號.
陳文彬,「國語와 臺語」,『人民導報』, 1946년 4월 21일.
林一命,「請下決心取消可怕的口號––動不動就說“開槍!”」,『人民導報』, 1946년 5월 3일.
『新知識』創刊號, 1946년 8월 15일.
「祖國的懷抱」,『民報』, 1946년 10월 26일.
「社論. 勸勉學徒諸君」,『民報』, 1946년 10월 1일.
「熱言」,『民報』, 1946년 12월 7일.
「社論. 臺灣人要歸那裡去?」,『民報』, 1947년 1월 21일.
薛綏之,「旅臺雜記」,『北方雜誌』6, 1947년 6월.
林荊南,「賽珍珠女士的中國觀」,『台灣文化』1卷 1期, 1946년 9월.

「日文廢止は時期尚早」,『新新』第六期, 1946년 8월 12일.
中島利郎著,『日治時期臺灣研究的問題點」, 彭萱譯,『臺灣文藝』46, 2003년 4월.
許佩賢,「日治末期臺灣的教育政策：以義務教育制度實施為中心」,『臺灣史研究』第20卷 第1期, 2013.
許佩賢,「初等教育」,『臺灣大百科全書』, 2009.
https://nrch.culture.tw/twpedia.aspx?id=3809.

(투고일: 2021.11.20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이름: 신민영
소 속: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303호
전자우편: idomybest-fkl@hanmail.net

[Abstract]

The Situation of Taiwanese Literary Circl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cus on Lu He-ruo's Chinese Novels-"Yue Guang guang (Moonlight)" and "Dong-ye(Winter night)"

Shin, Min-young

In this paper, first, the situation of Taiwanese literary circles after World War II was reviewed through various newspaper articles and records. Through Lu He-ruo's Chinese novels, I looked into the changes of Taiwanese society after the war and the difficulties of Taiwanese due to the replacement of the 'National language'. I analyzed that Lu He-ruo started as a critique of the Kuomintang government's compulsion to replace the Chinese language /'National Language' and led to the perception of 'who are Taiwanese'. And that awareness in "Dong-ye (Winter night)" was seen that developed into a consciousness demanding reform the Chen-Yi administrative authority by critically looking at the incompetence of the Chen-Yi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monopoly of political/ economic power. Also, it was judged that Lu He-ruo at this time became aware of the need to protect Taiwanese by themselves from the chaos and violence of the world, and began to think about intervention in reality through action.

Key words : Lu He-ruo, After the Second World War, Taiwanese (Min-nan yu), Switch of 'National language', "Yue Guang guang(Moonlight)", "Dong-ye(Winter night)"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 S1A5B5A17089611)